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5월 2일(금)
(윤력 4월 5일)
Пятница
2 мая 2025 г.
№ 17 (1213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5월 1일은 러시아에서 봄과 노동의 날로 기념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의 행진.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단신

사할린 샤희초르스크 학교에 소련 영웅 이름을 부여

사할린 주 샤희초르스크 마을의 '신테즈' 학교가 소련 첩보장교인 소련 영웅 수훈자 김 예브게니 이와노위츠 (본명 김용철, 1932~1988)의 이름을 받게 되었다.

사할린 한인회의 제안으로 우글레고르스크 구역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결정을 승인했다. 대한민국 경상남도 고창군에서 태어난 김 예브게니는 1942년 가족과 함께 사할린 토로 마을(현 샤희초르스크)로 이주해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중학교를 졸업했다. 1987년 소련 안기부 대령 김 예브게니 이와노위츠는 역사상 두 번째 소련의 한인 영웅이 되었다.

사할린, 올해 3개 국제포럼 개최

2025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사할린에서 3개의 국제포럼이 열린다.

8월 1~2일 '지속가능한 섬 발전: 기후 측면', 9월 6~8일 '사할린의 날개' 무인항공기 포럼, 9월 25~26일 '극동 에너지 포럼' '푸시스티' 드론비행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포럼들은 사할린의 투자 잠재력과 기술 혁신을 선보일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운영위원회 진행

지난 4월 26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의 1/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박순옥 주한인회 회장은 1/4분기 주한인협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와 얼마전 단체가 법무부에서 받은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했다.

박회장은 계획한 행사 외에 여러 행사를 하게 되었다며 지난 3개월 단체 관계자들이 바쁘게 움직였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사와 관련하여 단체는 아무런 재정 위반이 없었고, 다만 정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수정된 정관을 채택하기 위해 5월 31일 대표자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승전 80주년 기념 앨범 발매

사할린 음악인들이 위대한 승전 80주년을 기념해 '승리의 노래' 앨범을 발표했다. 전쟁 시기 대표곡 13곡을 재해석한 이 앨범에는 라리사 돌리나 아카데미 출신 신 가수들과 지역의 베테랑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다.

사할린주 문화공로자 작곡가 게오르기 조보브가 프로듀싱을 맡았으며,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도 특별 참여로 한 곡을 불렀다.

사할린 소방관들, 신규 장비 받아

사할린주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소방의 날을 앞두고 소방관들에게 현대식장비를 전달했다. 돌린스크, 티몹스코예, 코르사코브, 쿠릴스크, 세웨로쿠릴스크 구역에 5대의 신형 소방차가 배치될 예정이다.

현재 사할린주에는 약 1,400명의 소방관이 근무 중이며, 지난해에도 25대의 다양한 소방 장비가 공급된 바 있다.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봄과 노동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월 1일은 여러 세대가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오랜 역사를 가진 명절입니다. 이 봄날, 우리는 전통적으로 노동자를 기리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한 끈기, 헌신적인 노력, 지식 습득과 기술 연마에 대한 열정 - 사할린 및 쿠릴 주민들의 이러한 자질은 바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부와 석유 산업 종사자, 에너지 기사와 건설 노동자, 의료진과 교사 등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이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고향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우리 손으로 자녀, 손주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성공이 함께 하길 바라며, 끝없는 낙관과 가정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동향인 여러분, 즐거운 봄과 노동의 날 되십시오!

사할린 주지사 왈레리 리마렌코

트루트네브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위대한 조국전쟁의 영웅적 업적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연방 부총리 겸 대통령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 유리 트루트네브는 기자들과 만나 "승리의 날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명절"이라 강조했으며 "극동 모든 지역에서 위대한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가 준비 중이다. 특히 청년 세대의 참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소련 국민의 영웅적 업적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된다.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극동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된 땅이다.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쿠릴 열도 숲수섬에 대규모 전시관을 건립 중인데 여기서 쿠릴 상륙작전의 역사가 재현될 예정이다. 이 전시관은 청년 교육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승리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업적을 영원히 기억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서는 승리 80주년을 맞아 250,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수천 건의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중요 행사 중 하나는 8월 18일 숲수섬 군사역사기념 단지 1 단계 개관(쿠릴 상륙작

전 기념)이다. 5월 9일, 대조국전쟁 승리 80주년 기념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주요행사는 영예광장과 승리광장에서 펼쳐진다. 이날 전쟁참전자를 비롯해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전쟁으로 잃은 목숨을 기리며 생화에 헌화를 한다.

또한 군사 페레이드, '불멸의 연대'의 행진이 이어지고 전차 등 군장비 전시도 열릴 것이다. 가가린 공원에서는 '승리의 왈츠' 특별 기념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사할린주는 대조국 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념의 정원' 전국 행사에도 참가한다. 또한 사할린에서 전쟁 관련 극영화·다큐멘터리 '승리의 영화'상영 된다. 이 행사도 역시 전국에서 펼쳐진다.

그리고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는 스미르니흐 구역에서 '극동전선' 탐사대가 1945년 8월 사할린 공방전에서 희생된 병사들의 유해 발굴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 모든 행사는 전쟁의 교훈과 승리의 영광을 후세에 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할린 주정부 자료에서)

새고려신문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도 사할린 한인복지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한인연합회, 부모 사망한 2세 위해 사할린동포 특별법 개정 추진

2020년 5월 26일 제정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대한 특별법' 덕분에 수많은 사할린 한인들이 역사적 모국으로의 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법안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2023년 새로 설립된 사할린 한인연합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4월 24일(목) 유즈노사할린스크·모스크바·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사할린 출신 대표로 구성된 사할린한인연합회 대표단은 인천에서 재외동포재정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사할린 한인의 권리와 영주귀국 지원자 범위 확대를 위한 현행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으며, 특히 귀환 프로그램 시작 전 세상을 떠난 부모를 둔 2세대 사할린 한인들의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재외동포청 측은 "모든 제안을 검토하겠다"며 세대를 아우르는 사할린 한인 지원 프로그램 확대 계획을 밝혔다. 대표단은 재외동포청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현재 수천 명의 2세대 사할린 한인들이 특별법 적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사할린한인연합회는 이들의 모국 정착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사할린한인연합회
자문위원장
박 알렉산드르**

사할린동포청에 보낸 서한 내용

우선 사할린 한인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주신 대한민국 정부와 재외동포청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사할린 한인 연합회는 사할린, 알마티,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위시비르스크, 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 블라디보스토크, 로스토브-나-도누 등 러시아 연방과 CIS 국가에 거주하는 우리 사할린 동포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2024년 07월 17일부로 시행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특별법 이번 개정함으로써 좀더 많은 우리 동포들은 지원대상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 후에도 상당히 많은 우리 동포들은 현행법에 의거,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행법은 국내 영주 목적으로 귀국하는 동반가족을 제한함으로써 실제로 또 다시 이산가족을 만듭니다.

올해 2025년, 우리 조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뜻 깊은 해에 사할린 동포들이 기대하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저희 사할린 한인 연합회는 사할린 동포들을 대표하여 현행 특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사할린 동포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방안을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1. 제1세 부모가 돌아가신 2세 동포들도 영주귀국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포 대다수는 상기 방안을 지지합니다. 영주 귀국은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 시점까지 1세 부모가 돌아가신 이유로 2세들이 영주귀국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불공정한 대우로 받아들입니다.

제2차대전 이후 대부분의 2세들은 소련의 국적을 획득하지 않았으며 부모와 같이 모국에 귀국할 의지를 가졌지만 철의 장막 시대가 마감하기 전까지 그러한 권리를 발탁 당했습니다. 따라서, 사할린 한인 2세들도 영주귀국 대

상이 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건의 드립니다. 특별법 제2조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2. 이산가족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모국으로 영주 귀국을 희망하는 가족에 한하여 동반 가족에 대한 법적 제한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사할린 한인 역사에 있어 가장 마음 아픈 장면은 바로 이산가족의 역사입니다. 냉전시대 몇 만명의 한인들은 모국에 둔 가족 및 친지와 상봉하지 못했습니다. 강제 이별이 동포 가족들에게 안겨준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철의 장막을 넘어가기 불가능했던 시대는 끝났음에도, 실제로 가족을 갈라놓는 새로운 장벽이 현재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저희는 모국 영주귀국 사업의 일환으로 사할린 한인 온 가족이 고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2조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3 사할린 동포들은 귀국 후 모국 사회에 보다 잘 정착되기 위해 연령에 준하는 지원 방법 (프로그램) 다양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 조치와 범위를 2세까지 확대하기 제안합니다. 그리고, 3세와 그 이후의 후손들에게는 교육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확대도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생활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동포들 특히 청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본문에 따르면 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고국으로의 귀국, 정착 및 생활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공은 중요한 지원대책이지만,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지원 조치는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모국으로 영주귀국을 선택한 청소년과 사할린 및 기타 해외 지역에서 거주하기로 선택한 청소년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또

는 이 조치는 현행법에 의거 가능합니다.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생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직업 훈련 등의 사회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할린 한인의 상당 부분의 동포들(1, 2, 3세대)은 평생 거주한 국가 및 지역에 향후에도 지속해 살기로 결정했으며 영주 귀국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거주지에 살기를 택한 사할린 한인들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특별법 제1조 목적, 즉 사할린 한인들이 일제 감정기때 당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4. 사할린동포들은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없이 국적 회복절차 통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권리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러시아& CIS 국적을 취득한 사할린 한인은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합니다.

5. 사할린 한인과 그 후손은 대한민국 입국 사증과 ID 발급 절차를 단순화 해야 합니다.

상기 건의대로 지원 규모와 방법을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사할린 한인에 대한 지원 사업은 더욱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조치가 단순한 결정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국가예산 지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저희는 제안한 내용을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특별법 (2024년 1월 16일 개정) 제4조에 의거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사할린 한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할린 한인 연합회는 우리 제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기타 정부 기관과 민간 단체에 포괄적인 지원을 해드릴 의지가 있습니다.

**사할린한인연합회 회장 고영순
2025년 3월 15일**

이 모 저 모

안드레이 지갈킨, 전국 지리학 올림피아드 입상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리체이 9학년생인 안드레이 지갈킨이 전국 지리학 올림피아드에서 입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날치크(카바르디노-발카리아 공화국)에서 열렸으며, 러시아 77개 지역의 9-11학년 학생 250여 명이 참가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교육국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이론 및 테스트 라운드에서 다양한 지리학 분야의 문제에 응답했으며, 실습 평가에서는 8개 과목을 통과해야 했다.

안드레이 학생은 "전국 각지의 뛰어난 또래 친구들이 참가했으며 자신의 수준을 비교하고 스스로를 테스트 할 수 있어 재미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승리까지는 조금 부족했지만, 다음 기회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나누었다.

Андрей Жигалкин стал призёром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по географии

Учащийся 9 класса лицея №2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дрей Жигалкин стал призёром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школьников по географии.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этап прошёл в Нальчике и собрал свыше 250 участников — учеников 9-11 классов из 77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рамках теоретического и тестового туров школьники отвечали на вопросы из различных разделов школьного предмета. На практическом испытании участники прошли 8 локаций.

В олимпиаде участвовало много сверстников со всей страны. Было интересно сравнить свой уровень,

проверить себя. В целом я доволен своим результатом: до победы оставалось не так много. Верю, что улучшу свой результат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 поделился Андрей.

'아에로플로트', 5월에 유즈노사할린스크-모스크바 노선에 추가편 6편 운항

사할린주 교통부는 5월 공휴일 기간을 포함해 모스크바행 항공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대기자 명단' 서비스 및 추가 운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부는 '아에로플로트'항공사에 필요한 기간동안 추가편을 제안했다. 그 결과 추가로 6편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교통부 텔레그램 채널에서 전했다.

정확한 운항 일정 및 시간은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홈페이지 '운항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기자 명단' 서비스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0065(내선 2번)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매진된 항공편에 대한 예약 대기 신청이 가능해, 좌석이 확보될 경우 연락을 받고 예약을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В мае "Аэрофлот" выполнит шес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рейсов по маршру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Москв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тран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фиксировали повышенный спрос на авиабилеты до Москвы в период майских праздников и еще на несколько да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заявки поступали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рвис "Лист ожидания". Тогда ведомство обратилось к перевозчику — "Аэрофлоту" —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организов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ейсы в эти дни. В итоге в расписание было добавлено еще шесть рейс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минтранса.

Актуа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рейсах

размещена на сайте аэропор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разделе "Расписание".

Напомним, что сервис "Лист ожидания" принимает заявки ежедневно с 08:00 до 22:00 по телефону *0065, добавочный 2.

사할린주, 주말 동안 45명의 무면허 운전자 적발

지난 4월 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3일간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서 도로 순찰대원들이 운전 자격 정지 조치를 내리고 총 66명의 운전자를 적발했다. 이 중 20명은 음주 상태였으며, 46명은 운전 면허를 전혀 취득하지 않았거나 법원 판결로 면허가 박탈된 무면허 운전자였다. 지역 교통경찰안전국에서 주말 동안의 상세한 단속 통계를 공개했다.

3일간의 집중 단속에서 교통경찰관들은 66명의 운전자를 적발하는 한편, 446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했다. 이 기간 동안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는 한 건도 기록되지 않았다. 19대의 차량이 압수되어 특수법규 주차장으로 옮겨졌고, 그 외 제때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할린 및 쿠릴 주민 17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창문에 과도한 틴팅 필름을 부착한 운전자 52명과 머플러가 손상된 차량의 운전자 18명이 각각 벌금 처분을 받았다. 또한 미등록 차량 운전자 6명, 번호판 없이 주행한 운전자 2명, 주차 규정을 위반한 4명의 운전자도 적발되었다.

또한 주말 동안 교통경찰은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 8명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우선 원칙을 위반한 운전자 4명을 적발했다. 그외 어린이용 카시트 없이 아동을 태운 주민 16명이 적발되었으며, 순찰대원들이 목격한 가운데 반대 차선으로 진입한 운전자 21명도 단속 대상이 되었다.

(8면에 계속)

제11회 전 러시아 한국어 교사 세미나: 다문화 소통의 새로운 지평

지난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모스크바 국립 언어학대학교에서 제11회 전 러시아 한국어교사연합의 주최하에 학술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다문화 소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으로, 전 러시아의 한국어학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세미나 개최식에서는 모스크바 국립 언어학대학교 이리나 크라예와 총장, 주 러시아 한국 대사관 조성관 공사, 모스크바 국립언어학대학교 번역학부 예카테리나 포홀코바 학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이날 기조 세션에서는 알레리 수히닌(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 교수, 2006-2012년 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러시아 대사), 이리나 카사키나(모스크바국립대학교, 한국어 교재 저자), 세르게이 쿠르바노브(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코리아 역사전문가), 예카테리나 포홀코바(모스크바 국립언어학대학교 교수, 통역 메타커뮤니케이션 연구자) 등이 주요 발표자로 나섰다.

이들의 발표는 러시아 내 한국어 교육, 번역, 보급의 현안 문제를 다루며 논

의 방향을 제시했다.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 고등경제대학교, 극동연방대학교, 이르쿠츠크국립대학교 등 30개 이상의 대학들이 참여해 혁신적인 발음 및 문법 교육 방법,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재 개발, 영상·비즈니스 번역을 포함한 다문화적 측면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사할린국립대학교 팀의 발표가 눈에 띄었다. 사할린국립대학교 언문·역사·동양학 대학의 임 엘비라 학장과 코르네예와 인나 외국어 및 지역학 학과장은 "2030 우선순위" 국가 프로그램 내 한국어 교육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사할린 지역의 독자적인 한국어 교육 통합 사례와 교육기관-기업-시민단체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발표는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세미나 기간 중 한국 한양대학교 방



교영 교수의 특강을 비롯해 강연, 마스터 클래스, 토론회 등 다양한 형식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전 러시아 한국어교사연합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문적 교류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모임이 학문적 유대 강화뿐 아니라 러-한 교육·문화 협력 발전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본사 기자)

(사진: 사할린국립대 제공)

국제 로봇공학 챔피언십 '사할린 6.0' 성료... 100여개 메달 수여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할린에서 열린 국제 로봇공학 챔피언십 '사할린 6.0'에서 100여개의 메달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는 '푸시스티' 간이비행장에서 진행되었으며, 12개 분야에서 약 3,000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사할린 주는 이번에 처음으로 로봇공학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대회 조직과 환대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특히 참가팀 중 하나인 'Vortex'의 소피아 보고몰로와는 "사할린의 따뜻한 환대와 조직력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대해 칭찬했다.

대회 준비는 2024년 가을부터 시작되었으며, 참가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교통편이 철저히 마련되었다. 대회에는 4세부터 21세까지 참가자로 구성된 260여개 팀이 참가해 우승을 겨루었다.

사할린 팀들은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3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특히 'SakhRoboShark', '로보코르스', 'EML 액티베이션' 등이 두각을 나타냈다.

폐막식에서는 100여개의 트로피와 메달이 수여되었으며, 우승팀에는 노트북, 3D 프린터 등 장비와 국내 명문 대학의 입시 가산점이 주어졌다.

사할린 주정부의 왜체슬라브 알렌코브 부총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확인했다"며 "2025년 가을에는 '사할린테크' 캠퍼스를 열어 이 분야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러시아 교육부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푸시스티' 비행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할린주, '아빌림픽스-2025' 우승자 선발

2025년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사할린 주에서 장애인을 위한 전문 기술 경진대회 '아빌림픽스' 지역 예선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사할린의 미래' 선도적 직업훈련센터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지역 내 9개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37개 교육기관에서 439명이 참가한 가운데, 14세 이상 학생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경쟁을 펼쳤다. 4월 26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톨리차' 콩그레스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사할린 교육부 장관이 개회사를 통해 이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대회가 장애인의 경제적 잠재력을 확인하는 기회"라며 조직위원회, 멘토, 협력사 및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특수군사작전 참전 용사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42개 분야에서 진행된 경쟁 결과, 3개 카테고리에서 총 77명의 우승자가 선발되었다. 이 기간 동안 사할린 서비스 기술전문 학교 학생들을 포함해 13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대회 진행을 도왔다. 지역 예선 우승자들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국 챔피언십에 사할린 지역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 메달 및 후원사로부터의 선물이 수여되었다.

불법 조업 외국선박 입항 금지 조치

2025년 4월 30일부터 코르사코프, 네벨스크, 홈스크 항구에서는 국제 협정을 위반하는 조업 활동을 하는 외국 선박의 입항이 전면 금지된다. 사할린·쿠릴·감차트카 항구 사이트 게시판에 4월 29일 공지가 올라왔다. 이에 따라 인명 구조 등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 어선의 접근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취소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사할린대표단,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회 동아시아 언어와 문화 교육 포럼에 참여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모스크바 시립교육대학교에서 '교육 공간 속 동아시아 언어와 문화' 제2회 국제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중국학, 한국학, 일본학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된 이번 포럼은 테마별 세션, 원탁 토론, 마스터클래스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러시아 동양학계의 유명한 학자들이 기조연설을 했다. 알레리 수히닌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교수는 "현대 조선문학의 두 가지 갈래"에 대해, 블라디렌 부로브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철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국 사상의 계승과 발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게오르기 톨로야야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교수는 "동양학 졸업생의 진로 전망: 글로벌 시장을 위한 준비"주제가 많은 관심을 끌었다.

사할린 대표단의 한국어 교육자는 적극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4월 24일 포럼의 일환으로 한국어교육을 한 모스크바 제17번 학교에서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문제"를 주제로 한 원탁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학교 행정부와 교직원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환대 정신으로 포럼 참가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제17호 학교 교장 아르투르 루치신과 넬리 엠(본학교 전 교장, 이 학교에서 한국어교육 시작한 분) 이날 뜻깊은 환영사를 전했다.

사할린 대표단은 유치원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단계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즉, 사할린국립대 임엘비라 학장·인나 코르네예와 학과장, 유즈노사할린스크 '체부리슈카' 제9유치원 교사 야누쉬프스카야 원장·안한연 한국어교사,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제2김나지아 류드밀라 셀로하예와 한국어교사 등이다. 이들은 주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관련 문제를 다루었는데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리체이 폴리나 리쿠노와 정보화

교육부장이 발표한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외국어 교사의 전문성 발전 경로 설계' 주제는 낯설었지만 재미있었다.

4월 25일, 포럼 참가자들을 위해 러시아의 저명한 한국어학 전문가들이 다양한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했는데 사할린국립대학교 언문·역사·동양학 대학의 임 엘비라 학장은 전통 공예 기술인 '나전 칠기'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했다. 모스크바 시립교육대학교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의 한국어학 전문가, 학생 및 교사들이 참여한 이 활동교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통 공

예 기술인 나전칠기(진주조개로 물건을 장식하는 기술)를 처음 접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마스터클래스 참가는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었으며, 접수 시작 2시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4월 26일에는 학생 발표 세션이 진행되었는데 이에는 사할린국립대 학생들과 사할린국립대에 교환학생으로 부산 외국어대학에서 온 학생들도 참가해 발표했다. 김우현 유학생은 "한국 대학생들의 교육 경로 설계"를, 양지원 학생은 "한국 전통문화의 현대적 변용"에 대해 발표하며 현장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양지원 학생은 "배달 음식이 일상화된 한국의 식문화"를 분석하며 "사할린뿐 아니라 모스크바에서도 학술 활동을 할 수 있어 영



광"이라 소감을 전했다.

새고려신문에 국제포럼과 전국 한국어교사 세미나 정보를 전한 임 엘비라 사할린국립대 학장은 «다시 한번 단합의 힘을 확인했으며» 한국어 교육을 주제로 한 두 개의 행사가 연이어 개최된 가운데 사할린국립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독창적인 프로젝트들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었고 «'아시아와의 대화' 국제학교, 외국어 실력 경연대회 '섬의 경계', 혁신 프로젝트 '사할린알라이드'의 일환으로 열린 '예술과 창조 산업' 프로그램 등은 그 규모와 다양성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고 두 행사 참여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배순신 기자)

(사진: 사할린국립대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Школа в Шахтерске получит имя героя-разведчика

В знаковый год 80-летия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и Год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объявленный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на XXI сессии Собрания Углегор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депутаты единогласно поддержали присвоение школе "Синтез" в Шахтерске имени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Евгения Ивановича Кима.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о переименовании выступила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а углегорские общественники поддержали эту инициативу, сообщает ТГ-канал Администрации Углегор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Ким - легендарный развед-

чик, удостоенный высш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грады в 1987 году. Его жизнь - пример беззаветного служения Отечеству.

В 1942 году семья Кима переехала на Сахалин в поселок Торо (ныне Шахтерск), где будущий герой провел детство и получил среднее образование.



АСК борется за поправки в Спецзакон для лиц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Как известно, 26 мая 2020г.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ринят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алее – Спецзакон),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му многие наши земляки смогли переехать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по программе репатриации. Однако, принятие Спецзакона по-прежнему не решает множество вопросов.

И именно на их решение направлены усилия Ассоц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алее – АСК), учрежденной в 2023 году.

24 апреля 2025 делегация АСК, в составе которой бы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осквы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встретилась в г. Инчхон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далее - Агентство). На встреч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выработанные АСК практические предложения о том, что нужно изменить в действующем Спецзаконе, чтобы расширить права и возмож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прежде всего, активисты АСК затронули проблему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чьи родители не дожили до начала программы репатриации. Агентству были даны разъяснения о том, сколько сейчас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лиц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живут с надеждой, что смогут быть включены в программу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конкретные шаги, которые могут



быть сделаны для продвижения вопроса о включении лиц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в Спецзакон.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заверили членов делегации АСК в том, что все предлож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удут учтены при дальнейшей работе. Кроме того, Агентство планирует продолжить и расширить различные программы поддержки,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сех поколений. АСК надеется, что благодаря налаженным контактам с Агентством, дальнейшая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будет плодотворной.

Александр Пак,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НКО АСК

XI Всероссийский семинар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овые горизонты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21–22 апреля 2025 года в Москов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МГЛУ) прошел XI Всероссийски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ий семинар Объединения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российски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ОПКЯРУ). Тема мероприятия — «Межкультурная коммуникация: препода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 объединила ведущих экспертов в области корееведения из вузов всей страны. Семинар открылся приветственными словами ректора МГЛУ Ирины Краевой, Полномочного Министр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Чо Сунквана (Посо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декана перевод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МГЛУ Екатерины Похолоковой. Среди ключевых спикеров пленарной сессии были: Валерий Сухинин, профессор МГИМО (Чрезвычайный и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России в КНДР 2006-2012 гг.), Ирина Касаткин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ИСАА МГУ), автор учебников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Сергей Курбанов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корееведения СПбГУ), эксперт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и, Екатерина Похолокова (МГЛУ), исследователь метакоммуникации в переводе.

Их доклады задали вектор дискуссии, посвященной актуальным проблемам преподавания, перевода и популя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России. Более 30 университетов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и методики и исследования. Участники из МГИМО, НИУ ВШЭ, ДВФУ, ИГУ и других вузов обсудили: инновационные подходы к обучению фонетике и грамматике, роль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в создании учебных пособий, межкультурные аспекты перевода, включая аудиовизуальный и деловой форматы.

Ярко, динамично, в духе современных тенденций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команда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 студент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ахГУ).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кандидат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наук, доцент Лим Эльвира Хаммоковна и заведующая кафедрой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и страноведения, кандидат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доцент Корнеева Ин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представили доклад на пленарной сессии.



Их выступление было посвящено рол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проект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ддержки российски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Приоритет 2030».

Сахалински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поделились уникальным опытом интеграции корееведче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егион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подчеркнув важнос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бизнесом 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х доклад вызвал живой интерес у коллег. Семинар прошел в насыщенном формате: лекции, мастер-классы, дискуссии и даже дебаты. В рамках семинара состоялась также лекция профессора Пан Кёён из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нгук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Были также обсуждены планы на будущее, включая подготовку к следующей олимпиаде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ОПКЯРУ подтвердило статус главной площадки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диалога. Участники отметили, что такие встречи не только укрепляют научные связи, но и вдохновляют на новые проекты, способствующие развитию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разовании и культуре.

Наш 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но СахГУ)

К 80-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НЕ ОТНЯТЬ У РОССИИ ПОБЕДУ!

На планете раскаты, все сместилось в миру, Ностальгирует кто-то по большому костру, Кто-то чёрное белым нам рисует опять И мечтает Победу у России отнять

Припев: не отнять у России Победу!
Я поклялся однажды прадеду,
Я поклялся себе, я поклялся врагам,
Что Победу святую никому не отдам

Кто-то очень мечтает нас в кольцо затянуть, Ход истории мирной, как часы, повернуть, Чтоб стояла Россия на коленях моля, Чтоб плевали потомки и в тебя, и в меня

Припев: не отнять у России Победу!
Я поклялся однажды прадеду,
Я поклялся себе, я поклялся врагам,
Что Победу святую никому не отдам

День Победы России – становой ты хребет, Ты духовная сила всех грядущих побед, Ты есть стержень народа, ты есть стержень страны, Ты спасешь поколения от жестокой войны

Припев: не отнять у России Победу!
Я поклялся однажды прадеду,
Я поклялся себе, я поклялся врагам,
Что Победу святую никому не отдам

Припев: не отнять у России Победу!
Я поклялся однажды прадеду,
Я поклялся себе, я поклялся врагам,
Что Победу святую никому не отдам

ТЭХО Чан.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03.05.2015

Военная делегация КНДР отправилась в Россию

В преддверии празднования 80-й годовщины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которое в России планируется отметить с особой торжественностью, делегация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КНА) отправилась в Россию.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делегация КНА во главе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начальника Главн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ак Ён Илем 28 апреля вылетела из Пхеньяна для участия в Третье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нтифашист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Хотя КНДР официально заявила, что целью визита является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не исключ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обсуждения участ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в параде Победы,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9 мая. Ранее, в но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России Андрей Белоусов посетил Пхеньян и пригласил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на парад в честь 80-летия Победы. С учётом того, что в июн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ригласил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он Ына посетить Москву, высказываются предположения о возможном визите Ким Чен Ына в Россию в период торже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KBS World

Режиссёр Хон Сан Су войдёт в жюри Каннск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Южнокорейский режиссёр Хон Сан Су станет членом жюри 78-го Кан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Он – шестой по счёту южнокорейский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 удостоенный этой чести. До него в составе жюри были режиссёры Син Сан Ок и Ли Чхан Дон, актриса Чон До Ён, режиссёр Пак Чхан Ук и актёр Сон Ган Хо. Организаторы фестиваля отметили, что Хон Сан Су «постоянно развивается, сохраняя при этом свой лаконичный и интимный стиль». В состав жюри вошли также американская актриса Холли Берри, индийский режиссёр и сценарист Паял Кападиа, итальянская актриса Альба Рорвахер, франко-марокканская писательница Лейла Слимани, конголезский режиссёр и документалист Дюдо Амади, мексиканский режиссёр и продюсер Карлос Рейгадас, а также американский актёр Джереми Стронг. Возглавит жюри французская актриса Жюльет Бинош. 78-й Каннски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пройдёт с 13 по 24 мая. KBS World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НДР подтвердила отправку своих войск в Россию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первые официально подтвердила отправку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для поддержки России в конфликте с Украиной в рамках договора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ёрстве. Как сообщило 27 апреля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войска были отправлены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назад для участия 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в прифронтовой зоне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Операция по отражению авантюрного вторжения украинских войск на территор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была успешно завершена»,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В нём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чт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участвовали в операции «согласно приказу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Ким Чен Ына. Деятельнос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ил в России «полностью соответствует» Уставу ООН, другим международным законам и двустороннему договору, —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ЦТАК. 26 апреля начальник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оссии генерал армии Валерий Герасимов подтвердил участ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войск 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во время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Он отметил,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в ходе отражения украинского вторжения показали высокий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Ли Чжэ Мён - кандидат в президенты от партии Тобур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избрала своего бывшего лидера Ли Чжэ Мёна кандидатом на досрочных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назначенных на 3 июня. Об этом было объявлено 27 апреля по итогам внутривнутрипартийных праймериз, на которых он набрал 89,77% голосов. Это максимальный с 1987 года показатель, когда-либо зафиксированный н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праймериз среди кандида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ей. Ли Чжэ Мён стал кандидатом в президенты от данной партии во второй раз. Он пообещал построить «совершенно новую страну», которую назвал «Истин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Я смиренно выполняю обязанность по достижению национального единства, что является как задачей политики, так и главным приоритетом президента», — сказал Ли Чжэ Мён в своей благодарственной речи.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беспрецедентно высокая поддержка является «отражением отчаянной надежды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на поддержание демократии, соблюдение прав человека, сохранение мира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Ким Дон Ён занял второе место, набрав 6,87%, а бывший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Ким Гён Су набрал 3,36% голосов.

Спикер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находит в Монголии

Спикер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У Вон Сик находится с визитом в Монголии, где обсуждает вопросы парламент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изменения климата. В программе визита — встречи с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ми должностными лицами, включая председателя Великого народного хурала Дашзэвгийн Амарбаясгалану и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Ухнаагийн Хурэлсуха. Кроме того, У Вон Сик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и посадки деревьев,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в рамках двусторонней инициативы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опустынивания.

Режиссёр Хван Дон Хёк удостоен премии Gotham Awards

Южнокорейский режиссёр Хван Дон Хёк, создатель сериала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удостоен награды Gotham Awards в категории Creator Tribute. Как сообщили в оргкомитете премии, Хван Дон Хёк был выбран за «сочетание захватывающего повествования с острым культурным комментарием для создания глобального феномена». Gotham Awards — американская независимая кинопремия, присуждаемая с 1991 года. Награды в категории Creator Tribute присуждаются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культурным художникам и создателям, которые обогатили ландшафт и раздвинули границы телевидения, оказав неизгладимое влияние на эту среду».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состоится в Нью-Йорке 2 июня.

SK Telecom возместит абонентам ущерб от утечки данных

Ведущи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оператор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SK Telecom взял на себя полн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утечку данных абонентов и пообещал полностью возместить им любой ущерб. Ранее в этом месяце оператор обнаружил признаки масштабной утечки данных универсального модуля идентификации абонента (USIM) в результате кибератаки и предложил бесплатную замену USIM всем 23 млн пользователей. В качестве альтернативы замене компания предложила бесплатную установку на USIM программы защиты, которая так же эффективна, как и заме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услуг по замене и защите USIM началось утром 28 апреля во всех офисах продаж компании SK Telecom. Во избежание длительного ожидания своей очереди абонентам рекомендуется забронировать посещение офиса заранее.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Хан Док Су поручил должностным лицам проверить, насколько эффективными являются меры, принятые SK Telecom. **RKI**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Кига́й Никола́й Фёдорович

Родился 9 августа 1906 г.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Корейское имя — Ки Тау И. Потомок знатной корейской династии Ки. До войны — учитель, комсомольский и партийный работник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заведующий план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м отделом кондитерской фабрики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23 мая 1935 г. арестован Приморским областным Управлением НКВД по обвинению в том, что являлся членом контрреволюцио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Эм-Эль-Тан». Содержался в тюрьме в г. Хабаровске. 9 июля 1936 г. Особым совещанием при НКВД СССР осужден к 3 годам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Отбывал наказание в Сиблаге НКВД (Кемеровская область), участвовал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канала им. Москвы, затем работал инженером в Печерлаге НКВД. В 1939 г. освобожден, но продолжал работать в Печерлаге вольнонаемным.

Призван в ряды РККА Кожвинским РВК Коми АССР 13 сентября 1942 г.

Сержант. Командир отделения противотанковых ружей 2-го отдельного строительного батальона 58 отдельной стрелковой бригады 2-й Ударной армии Волховского фронта. Был ранен.

Погиб 6 августа 1943г. на Волховском фронте при прорыве блокады Ленинграда. По данным списка безвозвратных потерь офицерского, сержантского и рядового составов 58 отдельной стрелковой бригады за период с 1 по 10 августа 1943 г., похоронен в 700 метрах северо-восточнее д. Тортолово Мгинского (с 1960 г. — в составе Ки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Ле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Могила не сохранилась.

Президиумом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евого суда 25 октября 1956 г.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собого совещания при НКВД СССР от 9 июля 1936 г. было отменено и дело производством прекращено за отсутствием состава преступления. Реабилитирован посмертно.

Родственники: отец — Кига́й Фёдор (Ки Пенгири) (ок. 1870–1932/1934); мать — Пак Надежда Сергеевна (Пак Цунк-кундори) (1872–1948); жена — Кига́й (Ким) Мария Дмитриевна (1906–1934); брат — Яков (Ки Тау-Ин) (1911–1940); сын — Ингрид (1931 г.р.).

Источники:

1. Список безвозвратных потерь офицерского, сержантского и рядового составов 58-й отдельной стрелковой бригады с 01.08.1943 г. по 10.08.1943 г. // ЦАМО РФ. Ф. 58. Оп. 18001. Д. 894. Л. 4.



Н.Ф. Кига́й
Печерлаг. Коми АССР 1939/1940 гг.

Литература:

1. Корейцы — жертвы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в СССР 1934–1938. М., 2004. Кн. 3. С. 52–53.
2. Шин Д. Эхо войны не проходит бесследно // Ариран-Пресс. 2004. No 1
3.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М., 2003. С. 872–873
4. Цой В. Принц династии Ки с Ляпидевской улицы //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2003. No 2.
5. Книга памя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ми. Сыктывкар, 1994. Т. 3. С. 539.

Н.Ф. Кига́й

Отрывки из фронтовых писем

14 сентября 1942 г.

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мама, Инго и Алеша.

Пишу из гор[ода] Кирова. Это, конечно, большая новость для вас. Ещё 12–13 дней тому назад был в полутора тысячах километров севернее, там, в Заполярной тундре, а теперь пишу из Кирова. Меня призвали в армию. Пусть это не пугает мамашу. Еду защищать Родину, как тысячи и миллионы советских людей. Я рад, что еду в Армию. Во-первых, потому, что там, на фронтах происходят величайшие в мировой истории сражения, там, на фронтах решается судьба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ашей Культуры, и я не могу и не хочу сидеть где-то в тылу, а хочу быть там, в гуще событий. (Ведь моя жизнь — это кипение, буря приключений. Пусть к моим заполярным и другим приключениям прибавятся и мои фронтовые приключения). Если останусь в живых (а в этом я не сомневаюсь, я почему-то уверен, что я не погибну), то я могу вернуться к вам, к семье, гордый тем, что был одним из тех, кто своєю жизнью, кровью уничтожил чуму человечества — фашизм.

Я знаю, что мои восторженные настроения не поднимут духа у мамашы. Я знаю, что все мамашы одинаковы. Ей всё будет казаться, что её сына убьют на фронте.

Алеша, успокой мамашу, чтобы она меньше беспокоилась и меньше горевала, расскажи ей, что если я иду сейчас в армию, это не значит, что сразу буду на

фронте. Скажи ей, что я ещё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буду на учебном пункте. Ну, кроме того, объясни ей, что я как специалист буду в специальных частях, где меньше шансов быть убитым.

Вообще обрисуй ей более оптимистические картины возможных моих скитаний.

Самое главное, самое тяжёлое, над чем я задумываюсь — это о судьбе мамашы и сына. Ведь тебя тоже призывают в армию (если уже не призвали). Останется 75-летняя старуха с 10-летним внуком. Это самое страшное. Я знаю, что мамаша со своим слабым здоровьем может не выдержать, не дожждётся моего возвращения. Но что ж поделаешь! Как можешь, успокой её: она должна понимать, почему я иду на фронт. (Я иду почти добровольно, потому что я мог при желании не идти — у меня была броня, и меня не хотели пускать с работы).

А Инго — умный мальчик. Инго должен гордиться, что папа на фронте. Ну уж когда я вернусь с фронта, тогда Инго будет жить только со мной. Когда приеду в часть, я постараюсь выслать справку, чтобы мамаша и Инго как семья красноармейца получали помощь от государства. Буду часто писать, адрес свой сообщу. Привет всем. Николай, г. Киров

(Из книги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авторы-составители Д.В.Шин, Б.Д.Пак, В.В.Цой)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нача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флота дальнего действия"

Церемония спуска боевого корабля водоизмещением 5000 тонн состоялась на верфи в Нампхо в честь годовщины создания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волюционной армии.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26 апреля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ТАК).

Выступая на церемонии, Ким назвал строительство эсминца "прорывом в модернизации военно-морских сил" и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 будущем году Хеньян планирует продолжи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боевых кораблей такого же класса, а также построить более крупные крейсера и новые эскортные суда.

Новый эсминец, как отметил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оснащен системами для борьбы с воздушными, морскими, подводными и баллистическими угрозами и может наносить удары по наземным целям. На борту, по его словам, установлены вооружения, включая гиперзвуковые крылатые ракеты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назначения и тактические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эсминец после всех испытаний будет передан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осточному флоту в начал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Интерес вызвало и выбранное для корабля имя — "Чхве Хён",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в честь генерала Чхве Хёна, отца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Чхве Рён Хэ. Сам генерал был видным партизаном и соратником Ким Ир Сена, хотя напрямую с военно-морскими силами связан не был. Ким Чен Ын подчеркнул символ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этого имени как олицетворения "доблести и отваги".

Лидер КНДР также заявил о намерении создать флот, способный действовать в дальней морской зоне, чтобы "активно и безопасно управлять угрозам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сдерживать попытки наращивания сил иностранными державами".

"Мы не можем ограничивать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шего флота только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ми водами. Наша морская стратегия требует продвижения в любые воды мира, чтобы сдерживать агрессию враждебных стран и наносить им упреждающие или ответные удары", — подчеркнул Ким Чен Ын.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Сахалин открыл «победный» марафон Знание.Первые

Федеральный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й марафон, посвященный 80-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охватит всю страну. С 28 по 30 апреля его площадки открылись в каждом из федеральных округов России. 28 апреля марафон стартова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ученые, спортсмены, журналисты, артисты,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начали рассказывать молодежи о геро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России и о том, почему без побед прошлого были бы невозможны победы настоящего и будущего.

В марафон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более 25 тысяч молодых людей из все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Это школьники, студенты, победители олимпиад, лауреаты премий, активные участники молодежных движений. Из первых уст — от участник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их потомков — они узнают историческую правду о победе над фашизмом. А герои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рассказывают молодежи, как совершаются подвиги сегодня.

Приветственное слово участникам марафона адресов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Юрий Трутнев.

«Жител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несли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Победу, они воевали на всех фронтах, участвовали в ключевых сражения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битвах под Москвой и Сталинградом, обороне Ленинграда и Севастополя, противостояли японскому милитаризму.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колхозы, заводы и фабрики снабжали советскую армию оружием, одеждой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ем. Одним из последних сражений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стала Курильская десантная операция и штурм острова Шумшу, где в этом году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будет открыт 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Сегодня, когда перед Россией стоят новые вызовы, примеры наших героических дедов и прадедов дают нам силы двигаться вперед, развивать экономику, проводить независимую политику, укреплять могущество нашей Родины», — говорит в приветствии.

От имени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молодежь поздрави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 Россия сегодня начинает этот марафон, и Сахалин задает тон всей стране. Чтобы мы были едины, чтобы мы поддерживали наших ребят в зон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очень важно рассказывать о реальных фактах истории, о том подвиге, который совершил советский народ. Мы гордимся тем, что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завершилась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Есть примеры самоотверженности наших бойцов. Десантники подбили 17 танков, имея только противотанковое оружие и гранаты. Мемориал на Шумшу увековечит память о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Там мы проведем масштабную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ую реконструкцию, чтобы зрители ощутили героизм наших краснофлотцев, которые высаживались в ледяную воду и сходу вступали в бой. Мы хотим, чтобы об этом подвиге узнала вся страна. Ведь молодежь сегодня — те, кто завтра встанут у руля страны. Чтобы строить будущее, нужно хорошо знать прошлое, — подчеркнул он.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сегодня прочитал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го марафона первую лекцию: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 острова мужества и ратной славы».

Он напомнил молодежи, что за значимый вклад в приближение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Оха стала городом трудовой доблести. Охинцы в годы войны ударными темпами наращивали добычу нефти. Топливо именно из охинской нефти использовали для заправки танков в битве на Курской дуге. Швейные цеха непрерывно выпускали воинское обмундирование. Жители северного города также собрали более 5 млн рублей на нужды Красной армии.

Сегодня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уделяют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бойцов на Донбассе. 68-му армейскому гвардейскому корпусу регулярно передают современную технику и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возвращения ветеранов СВО к мирной жизни и работе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запустили проект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Сейчас участники проекта проходят собеседования, чтобы пройти обучение по нов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и расшир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карьерного роста.

На марафоне молодежь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стретится также с военным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м телеканала «Звезда», кавалером ордена Мужества Анатолием Бородинским, ректором теа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народным артистом России Евгением Князевым, многократной чемпионкой мира и Европы по фигурному катанию, дважды призером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Ириной Слуцкой, героем РФ, космонавтом-испытателем Александром Мисуркиным и другими выдающимися людьми.

Всего за дни марафона выступят свыше 130 спикеров, их лекции и открытые диалоги с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граммы можно будет увидеть на сайте марафона, а также в официальной группе Общества «Знание» ВКонтакте.

Справочно

«Знание» — крупнейшая в стране современная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торая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ит сотни мероприятий для молодежи по всей России: организует тысячи выступлений выдающихся людей из раз-

ных сфер, проводит научные конкурсы, снимает фильмы и помогает лекторам в нашей стране быть услышанными и найти свою аудиторию.

Первый федеральный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й марафон Знание.Первые состоялся в мае 2021 года и стал символом перезагрузки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Знание». На протяжении четырех лет проект зарекомендовал себя как популярная площадка для прямого общения между первыми лицами государства и молодежью.

Более 100 медалей вручили победителям и призёра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по робототехнике «Сахалин 6.0»

Один из самых масштабных турниров для молодежи в сфере разработки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ых инженерных решений завершилс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 25 по 27 апреля около 3000 ребят соревновались на аэродроме «Пушистый» в 12 направлениях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по робототехнике «Сахалин 6.0», чтобы выявить лучших. Сильнейшим командам России и самым успешным тренерам вручили более 100 наград, а также специальные призы от партнеров мероприяти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первые приняла соревнования такого уровн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успешно развивается своя робототехническая школа: в каждом из 18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есть собственные платформы для занятий, а лучшие команды регулярно представляют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на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Однако право на организацию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по робототехнике наш регион получил только сейчас, и дебютный турнир удалось провести на топовом уровне: это отметили ребята и их тренеры, которые прилетели на острова с материка.

«Я впервые на Сахалине, и у вас тут всё очень круто!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пребывания на острове, от встречи в аэропорту — и до нашего выступления здесь, на «Пушистом» даже не в чем упрекнуть. Не в первый раз уже участвую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робототехнике, но такого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и радушия не помню. Всегда рядом волонтеры, которые подскажут, помогут, проводят куда нужно. Очень четко организовали доставку от гостиницы к месту соревнований и обратно. Ну и ещё экскурсия понравилась: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чень красивый, чистый, ухоженный город. Единственный минус — холодно ватно у вас, конечно.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вернусь сюда ещё раз!» — поделилась участница команды Vortex из Зеленограда Софья Богомолова.

Подготовка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чемпионату по робототехнике «Сахалин 6.0» началась ещё осенью 2024 года. Помимо оснащения основной соревновательной площадки — ею стал аэродром «Пушистый», где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турнира определили два просторных обогреваемых ангара — для гост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разработали четкую схему трансферов, а также обучили волонтерский корпус. И уже 20 апреля Сахалин принял первые команды.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более 260 коллектив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4 лет до 21 года прилетели на меро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стало не только соревнованием юных инженеров, но и красочным фестивалем дружбы. Чемпионат прошёл под единым лозунгом «Сахалин — адриналин!»: его предлож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череды молодеж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2025 году.

«Мы гордимся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мандами, которые защищают честь нашей области на чемпионатах по робототехнике: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отмечают победами и призовыми местами престиж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Но, как и в любом виде спорта, конкуренция — самый результативный путь к победе. Мы хотели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в которых наши ребята и их приезжие сверстники не только будут состязаться, но и чему-то новому научатся друг у друга, подружатся. И это получилось! На чемпионате «Сахалин 6.0» было очень много группового веселья, общения, обмена контактами — я видела, как дети даже раздавали друг другу визитки со своими Telegram-каналами. В такой дружеской атмосфере просто не могло быть проигравших — они все победители и огромные молодцы», — подчеркну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На чемпионате блестяще выступили хозяева соревнований — коман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бята забрали 34 награды. В «Лиге Решений» команды SakhRoboShark и «РобоКорс» отметились в номинации «За мотивацию». Награда организаторов досталась команде «EML Активация». В «Инженерном мастерстве» выделили коллектив «КвантTeam».

В «Лиге Технологий» сахалинцы также не остались незамеченными. Победителями в номинации «Инновационный подход» стала команда SakhSplash, в номинации «Развитие сообщества» — команда technOkhclass, а в номинации «Экспертный выбор» — команда «Робобыки». Кроме того, коллектив SakhSplash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Игр Роботов» 1-й степени.

«Было сложно — мы понимали, что соревнуемся с лучшими из лучших. Адреналин просто зашкаливал, слёзы лились из глаз. Но, я считаю, мы выступили почти на максимуме сво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Говорю так, потому что наш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учат нас: всегда есть что улучшить и где вырасти. Было очень волнительно соревноваться с

командами из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и Красноярского края: они привезли реально мощных ребят. Мы очень многому у них научились. Но наши награды и результаты — это огромная радость. До последнего мы сомневались в том, что выйдем в лидеры. И, когда назвали нашу команду, все плакали от счастья.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всем, кто верил в нас, поддерживал и помогал. Мы доказали: Сахалин крут!» — рассказала участница команды SakhSplash Диана Рожнова.

Всего в рамках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Сахалин 6.0» организаторы вручили более 100 наград — кубки, медали, призы от спонсоров мероприятия и специальные призы за особые достижения в рамках соревнований. Генеральный партнёр, российский энерго-металлургический холдинг «Эн+» и постоянный партнёр, производитель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занятий робототехникой «Полимедиа» определили лауреатов турнира, которые получили путёвк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чемпионаты. Кроме того, особенно отличившиеся команды получили в награду за свои достижения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дальнейших тренировок — ноутбуки, планшеты, 3D-принтеры и лазерный станок. А лучшие технические вузы России выдали победителям — будущим абитуриентам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баллы для поступления: такие приятные бонусы подросткам дали РГУ им. А.И. Герцена, ТУСУР, «Алабуга Политех», ИТМО и СибГУ им. М.Ф. Решетнёва.

«За эти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мы наблюдали десятки соревновательных битв и море эмоций от участников, наставников и экспертов чемпионата. Я рад, что все вместе мы смогли сделать на Сахалине такое яркое и запоминающееся мероприятие. Уверен, ещё не раз встретимся с нашими новыми друзьями на острове, где встаёт солнце и рождается будущее. Международный чемпионат по робототехнике «Сахалин 6.0» показал: за этими детьми — наше будущее, будущее всей России в индустрии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и передовых инженерных решений. Осенью 2025 года мы запускаем кампус «СахалинTech», где огромное внимание будет уделено подготовке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в эт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И мы будем особенно рады увидеть среди новых студентов тех ребят, которые выступали на чемпионате»,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ячеслав Аленко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чемпионат «Сахалин 6.0» состоял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просвещения РФ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ёжь и дети». Основн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соревнований стал аэродром «Пушистый»,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полигоном для испыта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инженерных разработок в сфере БПЛА и первым дронопортом Росси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ередал военным в зоне СВО новую партию спецтехники и оборуд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одолжает регулярно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в зоне проведения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В новую партию техники, котора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оступит на передовую, вошли устройства для связи, пластик для 3D-принтеров и друг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FPV-дронов.

— С момента начала СВО поддержка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и их семей — одна из наших самых главных задач. Регулярно мы поставляем на передовую все, в чем нуждаются наши бойцы. В этот раз мы отправляем зарядные устройства, аккумуляторы, дисковые пилы,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ремонта дронов, комплекты оптики и связи. В то же время здесь, на месте, продолжаем помогать родным ребят. Делаем все, чтобы они чувствовали нашу помощь и поддержку,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 начала проведения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ладил регулярные поставки груза помощи на Донбасс.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передает в зону СВО различ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адресные посылки. Ранее на передовую доставили дизельные генераторы, беспилотники, системы для подавления вражеских дронов, внедорожники, мини-экскаваторы и друг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и спецнаряжение.

— Выражаем больш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то, что любящая наша просьба не остается без внимания. Все это помогает всем нам, каждому бойцу, качественно выполнять свои задачи в зоне СВО и приближает нашу общую Победу.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 сказал врио командира 39 ОМСБр подполковник Денис Великанов.

С начала проведения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в регионе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организована всесторонняя поддержка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и их семей. Стартовал проект «Сопричастность»,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бойцы получают адресные посылки от родных и близких. Благодаря работе волонтеров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 Донбасс поступит еще 12 тонн личных отправок. Запущена региональная кадровая программа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ВО. Успешно завершившие обучение включаются в кадровый резер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лужите Родине. Мы будем поддерживать и помогать нашим землякам, — подытож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1대 대선' 재외선거인 26만4251명 등록...美-日-中 순 공관별로는 日대사관이 최다19대보다 ↓ 20대보다 ↑ ...코로나 이후 귀국사례 영향 투표일, 5월20~25일...재외공관 등서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인 수는 총 26만425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마감한 국외 부재자는 23만 2987명, 재외선거인은 3만1264명이 등록했고, 여기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재외국민 2만6341명이 재외선거에 참여한다.

권역별로는 아시아권이 11만6974명으로 가장 많고, 미주권이 6만2989명, 유럽권이 4만3568명, 중동권이 6999명, 아프리카권이 2847명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만1799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2만6003명, 중국 2만5027명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도 베트남 1만6550명, 캐나다 1만4141명, 독일 1만3170명, 호주 1만2172명, 영국 6149명, 프랑스 4709명 등이 재외선거에 참여한다.

재외공관별로는 일본대사관이 1만56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하이총영사관 8910명, 베트남대사관 8538명, LA총영사관 7965명, 호치민총영사관 7414명, 밴쿠버총영사관 6824명,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6513명, 뉴욕총영사관 6454명, 영국대사관 6149명, 싱가포르대사관 5488명, 토론총영사관 5526명, 프랑스대사관 4709명 등으로 집계됐다.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된 유권자는 오는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재외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2017년 실시한 19대 대선은 30만34명, 2022년 실시한 20대 대선은 23만1247명이 최종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를 등록했었다.

한인사회 관계자는 "재외선거인 수를 보면 이번 대선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19대 대선보다 재외선거인 수가 적은 것은 코로나19 당시 중국 등 일부 지역에서 국내로 복귀한 재외동포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재외동포신문)

지구촌한글학교미 래포럼, 세계 속 한국 정체성 교육 모색

서울서 제8회 발표회, 7개국 동포
관계자 60여 명 참석이기수 원장,
'대한민국의 위대성과 가치를 교육
해야' 강조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이 4월 21일 개최한 제8회 발표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

국내외 동포 차세대들의 정체성 교육과 미래 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가들의 대화마당인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공동대표 박인기·김복섭)은 지난 4월 21일 서울 중구 종이나라박물관(관장 노영혜)에서 국내외 7개국 동포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인기 공동대표(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장)는 개회사를 통해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이 어느덧 8회째를 맞았다"며 "우리가 함께 나눌 현장의 진솔한 이야기와 주장들이 의미 있는 시간과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봉자 연세대학교 언어연구원 전 교수는 축사를 통해 "동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1986년에 시작됐다"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는 해외 한글학교에서 수고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선배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차세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교육은 공중에 뜬 뜬 이야기에 불과하다"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창성을 갖고 있는 동포 차세대 한국어 학습자를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창원 민주평통 북유럽협의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한글학교 미래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K-팝·드라마·푸드·코스메틱 등을 기반으로 한 시너지 창출경제를 한글학교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꾸준히 연구 개발하여 지속적인 번영을 추구하게 되길 바란다"며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동포들과의 상생협력을 추구하는 지구촌한글학교의 미래는 희망과 성공의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은 '대한민국의 가치,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주제로 기조강연에서 "교육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초등학교 때부터 자녀들에게 대한민국의 위대성과 가치를 충분히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헌법의 가치를 교육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존감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박은숙 캐나다 해오름한국문화학교 교장이 '떠도는 섬,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로 입양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고민을 다뤘다.

박은숙 교장은 "입양인은 출생지와 성장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정체성·소속감을 고민하며 살아간다"며 "그렇다고 미정착·상실·불안정한 존재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어딘가에 닿고 싶은 갈망과 희망을 갖고 자기를 완성시켜 나간다"고 강조했다.

홍영식 도미니카한인교회 담임목사(재외한인구조단 전 사무총장)는 '카리브해에 부는 한글 바람'을 소개하며 중미카리브지역 한글학교와 세종학당의 현황을 설명했다. 아프리카한글학교협의회 사무국장으로도 수고한 조윤정 남아공 요하네스버그한글학교 교사는 현지 한국어 교육의 도전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청, 제14회 한국정책학회 정책공감 부문 최우수상 수상

국민 체감형 민원서비스 개선 정책 도입 및 효과적 시행 공로 인정

수상 연계한 '글로벌 한상경제권 구축 방안' 주제로 동포정책 세미나 열어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가 주는 정책공감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재외동포청은 4월 25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LW 컨벤션센터(3층)에서 열린 '제14회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정책학회는 △재외동포들의 민원 접근성 향상 △온라인 기반 상담시스템 확대 △수요자 맞춤형 대응체계 도입 등 국민 체감형 민원 서비스 개선 정책을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한 공로를 인정하고,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높았다고 평가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날 수상과 연계해 한국정책학회가 개최하는 '2025 춘계학술대회'를 마련했다.

재외동포 정책의 학술적 기반 강화와 정책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한 세미나에는 국내 정책학 전문가와 실무관계자 300여 명이 참가했다.

세미나는 'K-공동체 수립 및 지원 정책'과 '글로벌 한상경제권 구축과 재외동포 인재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최연구 교수(건국대)는 'K-공동체 수립 방안'을 주제로 다양성 기반의 정체성과 열린 네트워크에 기반한 'Koreanity(한국성)'중심의 공동체 형성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고, 이민정책연구원 유민이 박사는 '국내 체류 재외동포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 거주, 교육

등에서 나타나는 정책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패널로 참여한 이기성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 겸 정소운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K-공동체 수립의 정책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패널들은 국내 체류 동포가 K-공동체 수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이철승 조선대 교수는 '한상경제권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접근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어울림 철학의 공동체론을 중심으로 한 한상(韓商)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재외경제인과 모국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이 우선해야 한다고 역설했고, 우경섭 인하대 교수는 만주로 귀화한 조선인들을 중심으로 '재외동포 인재활용 정책 방안'을 발표하면서 세대별·직종별·맞춤형 인재 유입 정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단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박사, 이장섭



4월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회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시상식(왼쪽부터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박형준 한국정책학회 회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재외동포청]

전남대 교수는 "한상경제권 구축은 한국의 경제적 영토를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고, 인재풀 확대와 연계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상식과 학술세미나에 직접 참석한 이상덕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사명을 가진 조직"이라며 "올해를 한상경제권 구축 원년으로 선포하고, 총 4천 990만 달러(한화 약 740억 원 정도) 규모의 수출계약 체결 실적을 달성한 2025년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의 성과에서 보듯이 재외동포청은 실사구시적 동포 정책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청, 모국 첫 방문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 격려

변철환 차장, 21명과 만찬 간담회... "전통문화 지키며 사신 여러분 존경"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은 4월 24일(목) 오후 서울 동대문 인근의 한 식당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모국땅을 처음 밟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 만찬 간담회를 열고 환대했다.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AKNC)가 주관한 이번 모국 방문에는 한국을 처음 방문한 카자흐스탄 거주 고려인 동포 21명이 참가했다.

변 차장은 "먼 타국 땅에서도 우리 전통문화를 지키면서 깨끗하게 살아오신 동포 여러분에게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있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방문단 중 최고령자인 최 니콜라이 어르신(91세)은 "우리의 핏줄을 잊지 않고 살아왔으며, 처음 한국 땅을 밟지만 낯설지 않다"면서, "방문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재외동포청에 감사한다"고 고마워했다.

지난 4월 22일 입국한 고려인 동포들은 창덕궁, 청와대, 국회의사당, 한국민속촌, 서



울타위, 일산 꽃박람회 등을 둘러본 뒤 25일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Более 45 бесправников задержа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выходных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 пятницы по воскресенье, 25–27 апреля, сотрудники дорожно-патрульной службы отстранили от управления транспортом и задержали 66 водителей. 20 из них находились в состоянии алкогольного опьянения, 46 человек либо не получали права, либо лишились их по решению суда. Подробную статистику за выходные опубликов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й Госавтоинспекции.

За трое суток инспекторы ДПС задержали 66 автомобилистов, пресекли 446 нарушений ПДД, при этом 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 ни одной аварии с пострадавшими в области. 19 автомобилей увезли на штрафстоянки. Помимо этого, составили 17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материалов на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не заплативших штрафы вовремя.

За слишком плотную тонирующую пленку на окнах заплатили 52 человека, еще 18 оштрафовали за сломанные глушители. Также штрафы получили шестеро водителей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двое на машинах без номеров и четыре нарушителя правил парковки.

С пятницы по воскресенье сотрудники ГАИ оштрафовали восьмерых не пристегнутых водителей. Другие четверо не пропустили пешеходов на «зебре». Помимо этого, 16 островитян перевозили детей без удерживающих кресел. Еще 21 водитель выехал на «встречку» прямо перед сотрудниками ДПС.

2025년 1월 1일 기준 сахалин주 인구 현황

2025년 1월 1일 현재 сахалин주의 총 인구는 457,597명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도시 인구는 379,389명(전체의 82.9%)이며, 농촌 인구는 78,208명(17.1%)으로 집계되었다.

2025년 1월 1일 잠정 통계에 따라 сахалин주 인구의 연령

대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сахалин주의 전체 인구에서 주요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근로가능 연령 미만(16세 미만) 18.0%, 근로가능 연령 59.0%(만 16세부터), 근로 가능 연령 이상(고령층) 23.0%이다(2024년 1월 1일 기준 각각 18.0%, 59.3%, 22.7%). 여성 인구의 비율은 52.7%이다.

예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기준 90세 이상 장수 노인은 총 1,648명(2024년 1월 1일 기준 1,54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100세 이상 고령자는 59명(남성 12명, 여성 47명)으로 확인되었다.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января 2025 года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января 2025 года составила 457 597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город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 379 389 человек (82,9% от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сель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 78 208 человек (17,1%).

Доля основны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 в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на 1 января 2025 года составила: младше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 18,0%,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возраста – 59,0%, старше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 23,0% (на 1 января 2024 года – 18,0%, 59,3% и 22,7%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Доля жен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оставила 52,7%.

Число долгожителей (в возрасте 90 лет и старш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1 января 2025 года,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оценке, составило 1 648 человек (на 1 января 2024 года – 1 544 человека), из них в возрасте 100 лет и старше – 59 человек (12 мужчин и 47 женщин).

대법원: 모바일 앱으로 한 사기 대출 계약 무효 판결

러시아 대법원은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기꾼들이 타인의 명의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계약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발표한 제1차 사법실무 검토에서 내려졌으며, 전국 하급 법원들은 이 판례를 준용해야 한다.

이번 판결의 계기가 된 사건(사건번호 46-КГ23-6-К6)

은 한 여성이 자신의 명의로 체결되지 않은 대출금을 은행이 강제로 변제하도록 요구한 소송이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불법으로 발급된 대출금은 즉시 제3자의 타 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법원은 "계약의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 표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고객의 동의 없이 체결된 모든 금융 계약은 권리 침해에 해당해 무효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은행 측을 지지했던 이전 판결을 파기하고, 향후 법원들은 대출 관련 사기 주장에 대해 보다 철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Верховный суд: кредит, оформленный мошенниками через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ничтожен

Верховный суд России постановил: если кредитный договор был оформлен от имени человека мошенниками через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банка, такой договор считается недействительным. Такое решение вынесли в первый обзор судебной практики Верховным судом РФ. Теперь нижестоящие суды должны опираться на это.

Поводом для решения стало дело гражданки, с которой банк требовал вернуть деньги по кредиту. Дело рассмотрено в определении № 46-КГ23-6-К6. Выяснилось, что сама она договор не заключала — от её имени в мобильном приложении действовали неизвестные лица. Полученные на её счёт кредитные средства сразу же перевели в другой банк на счёт третьего лица.

Суд подчеркнул: чтобы сделка считалась действительной, человек должен добровольно выразить желание её заключить. Если договор оформлен без ведома клиента, это нарушение его прав, и такой договор признаётся ничтожным.

Верховный суд отменил предыдущие решения по этому делу, поддержавшие банк, и указал: суды обязаны тщательно проверять доводы людей о мошеннических действиях при оформлении кредитов.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 의사님을 찾습니다

한국정부로부터 한국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받은 중앙아시아(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지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지의 의사면허를 소지한 미혼 여자분들 중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희망하는 분을 찾습니다.

연락처 : 송권호(한국의 금융 및 국제결혼전문상담사)

휴대전화 : +821032743706

이메일주소 : skhpeace2010@gmail.com

Ищем незамужнюю женщину-врача, желающую переехать в Корею через брак

Ищем незамужнюю женщину-врача из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Кыргызстан, Казахстан, Узбекистан), России, Украины и других стран, желательне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цу, которая:

- Окончила медици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 Имеет действующую лицензию на медицинскую практику в своей стране
- Получила право сдавать экзамен на медицинскую лицензию в Южной Корее о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реи
-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переезде в Корею через брак (брачная иммиграция)

Контактная информация: Сон Квон Хо (экспер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бракам и финансовым вопросам, Южная Корея)

Мобильный: +821032743706

Email: skhpeace2010@gmail.com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옥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среда 17-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